

남은 經營層은 새로운 經營環境에 適應할 수 있도록 態勢의 再整備와 體制의 轉換이 切實히 要望되는 此際에 經營者의 意思決定을 科學的으로 解決한다는 OR 技法의 理解習得은 실로 重要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平易한 說明과 實際的인 事例를 들어가면서 問題解決中心의 展開는 누구에게나 好感과 感銘을 줄 수 있는 書冊으로 評價하고 싶다.

<經營管理>

「마쯔다다게히고」등 공편: 『經營組織의 「시스템」』 經營組織の システム:

松田武彦, 橫山保, 春日井博 監修,
日本生産性本部, 東京, 1967

表 基 勳

本書는 日本의 日本生産性本部에서 經營「시스템」工學을 體系化를 위해 全7卷으로 出版한 1. 『經營의 總合「시스템」』, 2. 『購買—生産—在庫「시스템」』 3. 『經營價值「시스템」』, 4. 『經營組織의 「시스템」』 5. 『經營「시스템」工學을 위한 IE의 手法體系』 6. 『經營「시스템」工學을 위한 OR의 手法體系』 7. 『經營「시스템」工學을 위한 要覽』 등의 全集가운데의 한卷이다.

經營「시스템」工學的인 接近을 한 『經營組織의 「시스템」』에 參與한 日本의 東京工業大學教授이며 國際 OR學會聯合會副會長인 松田武彦, 中央大學經濟學部助教授인 高柳 曉, 東京外國語大學助教授인 岡本康雄, 東京都立工業短期大學助教授인 秋庭雅夫, 東京女子大學教授인 高田洋一郎, 早稻田大學教授인 坪內和夫와 그의 秋葉博, 木村幸信, 橫山 保 등이 著者로써 參與하고 있다.

本書는 序文에서 經營「시스템」은 그 活動에 의해서 財貨와 「서비스」의 흐름을 통해서 價値의 흐름이 生成된다고 보고 이때 經營「시스템」을 어떠한 活動을 行하는 場所로 생각하고 여기는 人間, 設備, 組織이 存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經營「시스템」의 場所에 關해서 「시스템」工學的檢討에 依해 財貨의 흐름과 價値의 흐름이 어떠한가 또 經營「시스템」의 活動에 關한 「시스템」工學的考察이 그 基盤을 어떻게 形成하고 또 그 效果를 높이는 가를 考察하고 있다.

本書는 全6章으로 되어있다.

第1章은 經營活動의 場所인 「시스템」: 本章에서는 經營에 있어서의 組織·設備·人間의 「시스템」相互關係를 提示하고 있다. 보다 具體的으로는 經營「시스템」에 있어서 內的條件, 다음으로 經營「시스템」의 場所에 있어서 操作條件, 마지막으로 經營「시스템」의 總合性を 取扱하고 있다.

第2章 組織의 「시스템」:

本章의 組織「시스템」은 첫째 「시스템」으로서 組織, 둘째 組織의 諸側面과 基本的人間觀, 셋째 意思決定의 「메카니즘」 넷째, 管理組織의 構造 다섯째 組織의 變化, 여섯째 組織管理의 動向으로 構成되어 있다.

첫째 「시스템」으로서 組織은 먼저 「시스템」의 意義를 밝히고 다음으로 「시스템」과 組織의 關聯性を 提示하고 있다.

둘째 組織의 諸側面과 基本的人間觀에 대해서는 「마치」(J.G.March)와 「사이몬」(A.Simon)의 見解를 導入하고 있다.

셋째 意思決定의 「메카니즘」에서는 組織에 있어서 個人的水準에서의 意思決定과 組織에 있어서 合成의 意思決定 그리고 意思決定의 調整과 行動의 統合을 차례로 취급하고 있다.

넷째 管理組織의 構造에서는 먼저 從來의 管理論에 의한 組織構造의 基本形態를 提示하고 다시 管理의 原理와 그 問題點 및 「스탈」 그리고 意思決定의 「시스템」과 組織關係를 具體的으로 다루고 있다.

다섯째 組織의 變化에서는 製品需要의 伸長, 大規模化, 經濟政策의 變化, 金融市場의 變化, 勞動市場의 變化, 技術의 變化, 文化環境等の 環境變化에 대한 組織의 適應關係를 展開하고 다시 組織의 自發的變化和 「이노베이션」에 까지 發展시키고 있다.

第3章 設備의 「시스템」:

本章에서는 첫째 「시스템」概念의 擴大, 둘째 「시스템·디자인」의 段階, 셋째 設備「시스템」과 그 構成, 넷째 經營活動에 있어서 設備「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첫째 「시스템」概念의 擴大를 위해 「케시너」(Richard B.Kershner), 「아코프」(Russell L.Ackoff), 「고어」(Willis Gore), 「차러퍼스」(Dimitris N. Chorafas), 「구이드」(Harry H.Goode), 「마이콜」(Robert E. Machol), 「오프너」(Stanford L. Optner) 「레러」(Robert N. Lehrer) 등의 教授 見解를 들어 「시스템」概念을 擴大시키고 있다.

둘째 「시스템·디자인」의 段階에선 目的解明 및 「시스템」의 構成 「시스템」의 利用等を 취급하고 있다. 셋째의 設備「시스템」과 그 構成에서는 먼저 機能構成과 物的「시스템」·管理「시스템」을 다루고 다시 要素의 構成 및 配置와 設備「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세째의 經營活動에 있어서 設備「시스템」에서는 固定的要素로서의 設備와 設備 「시스템」의 構成 및 作用을 取扱하고 있다.

第4章 人間の 「시스템」:

人間の「시스템」에선 먼저 企業과 人間과의 關係를 살피고 다음으로 人間の「모델」을 提示하고 있다. 다시 人間關係의「모델」을 取扱하고 이를 發展시켜 人間關係「시스템」에 接近을 하고 있다. 여기서 公式組織과 非公式組織을 比較하고「시스템」의 觀點을 다루고 있다.

第5章 人間—機械「시스템」:

本章에서는 먼저 人間과 機械「시스템」의 設計를 다루고 다시 人間과 機械「시스템」의 解析을 靜的解析과 動的解析으로 나누어 다루고 마지막으로 人間の 特性을 取扱하고 있다.

第6章 「시뮬레이션」에 의한 接近:

本章에서는 設備投資의「시뮬레이션」과 組織의「시뮬레이션」 그리고 「메네지먼트·시스템」의「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設備投資의「시뮬레이션」은 投資問題에 대한 「시스템」的·接近으로써 不確實性狀況下의 接近과 動的性格의 狀況下의 接近을 取扱하고 있다.

둘째 組織의「시뮬레이션」에서는 「보니니」(Bonini)의 企業「모델」을 取扱하고 있다. 즉 「보니니」의 企業「모델」에 대한 背景·概要·特徵 및 企業「모델」의 豫測과 計劃, 企業「모델」의 實施와 統制 그리고 「모델」의 實驗과 그 結果에 關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프로그래밍」을 다루고 있다.

本書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從來의 組織論研究에서 一步前進하여 앞으로 組織論의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 著書라고 하겠다. 本來 本書는 經營理論에 經營工學的 接近을 행하여 經營理論 특히 組織에 있어서 새로운 方向을 示唆하려는 計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본다.

물론 모든 問題點을 한 책에 수록한다는 것은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本書는 급속히 發展하는 經營學의 方向提示에 有用性이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面을 綜合하여 본다면 本書는 훌륭한 努力을 우리를 위하여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市場論>

Outline of Marketing

by 「William J. Shultz」

Littlefield, Adams & Co., 1964.

許

衛

이 책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교수 윌리엄 J. 쉘츠(William

筆者: 東國大學校 經商大學 教授